



무게에 대한 나의 생각

한국계량측정협회

경영지원부 원 항 숙
02-3489-1325

나는 이것 앞에만 서면 긴장을 한다. 그건 바로 체중계.
조심스레 한발을 살포시 올려놓고, 숨을 죽이고 들이마시고는 다른 한발을 올려놓는다. 그때봤자 이제의 무게가 줄어들기 만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체중계 앞에서는 같은 모습이 된다.

몸무게에 민감했던 학창시절, 체중계에 올라신다는 건 웬지 참 부끄러운 일이었다. 가끔 대중목욕탕에서 올라서는 서울이야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둘러본 후 조용히 올라섰기에 상관이 없었지만 신체검사 시간에 만나게 되는 체중계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피로운 현실이었다. 신체검사 시간에 온 교실 가득 울려 퍼지던 숫자들, 다른 친구들의 몸무게를 듣고 웃으면서도 맘속은 이미 울상이 되었다. 내 차례가 되면 두근거리는 심장소리에 내가 너 놓았던 기억이 아직 도 남아있다.

저울로 재어 나오는 사람의 몸무게가 진짜 무게가 아니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의 몸무게는 지구중력에 의해서 재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저울로 무게를 잴다 하더라도 중력이 다른 곳에서 무게를 재면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

흔히 이야기 하는 것이 달과 지구에서의 무게 비교다. 달처럼 중력이 지구의 1/6인 곳에서 무게를 재면 몸무게도 1/6 밖에 안나온다는 것. 진짜 무게를 알고

싶다면 전량을 달아보면 된다고 한다. 질량은 양팔저울을 이용해서 달아볼 수 있는데, 양팔저울을 이용하면 지구에서든 달에서든 동일한 값의 진짜 무게를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고유질량이다. 고도에 따라, 중력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무게의 단위는 1 kg=1 kg중 이고 어디서나 불변하는 질량은 kg으로 표시한다.

숫자로 표시되는 무게나 전량은 체중계나 양팔저울로 잴 수 있다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저울로는 잴 수 없는 또 다른 무게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저울로 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따옴의 무게가 그렇고, 생각의 무게가 그리하며,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 친구들과 간의 우정의 무게 능능이 그렇다.

사람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무게는 체중계로 재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아마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무게가 아주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무게를 덜 가진 사람과 더 많이 가진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체중계로 재어지는 무게의 차이만큼이나 확실한 것일 것이다.

체중계로 재어지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칼로리 계산을 하는 나는 또한 저울로는 잴 수 없는 무게를 늘리기 위해 오늘도 파이팅을 외치며 험차게 살아가고자 한다.

